12-28
2012.06.27

현안과 과제

가뭄으로 인한 물가 불안 대응 방향

현대경제연구원

1. 가뭄[1] 현상 심화

○ 최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농산물 생산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최근 가뭄으로 강수량이 평년값[2] 대비 35.6%에 머물고 있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2012년 5월 현재 강수량은 36.2mm으로 평년값 101.7mm의 35.6%임
- 2006년 이후의 가뭄과 비교해보면 2008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임
- 가뭄에 의한 강수량 부족으로 작물에 대한 피해 및 손실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커서 농산물 생산 감소,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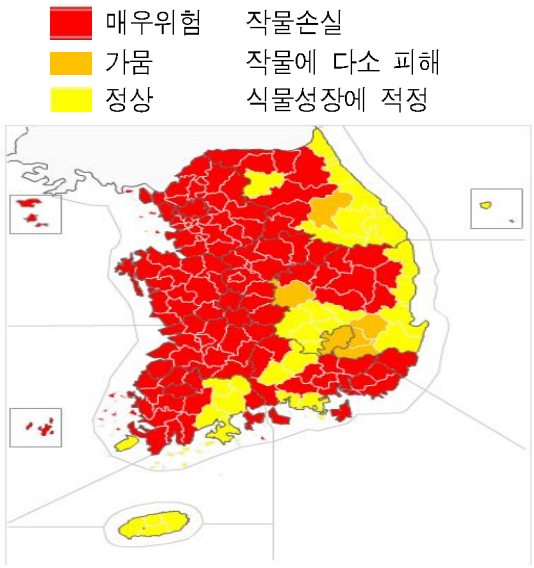
< 가뭄 시기와 강우량 >

(단위 : mm, %)

기간	평년값 (월 단위)	강수량
2006년 3월	56.4	13.4 (23.8)
2007년 4월	78.5	35.0 (44.6)
2008년 2월	35.5	8.0 (22.5)
2010년 6월	161.6	71.0 (43.9)
2012년 5월	101.7	36.2 (35.6)

자료 : 통계청, 기상청.
주 : 1) 평년값은 해당 월의 30년(1981~2010) 평균값을 의미함.
2) ( )안은 평년값 대비 %임.

< 최근 가뭄 현황 >



자료 : 기상청.
주 : 2012년 6월 25일 현재 가뭄 현황.

1) 가뭄이란 어느 지역의 인간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이나 동식물 생육에 피해를 가져올 정도로 강수량 부족이 장기화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임. 이 중 기상학적 가뭄은 특정한 기간 동안의 강수량을 평년값과 비교하여 강수량이 부족한 경우 강수량 부족 정도를 평년과 비교하여 작은 경우를 말함(기상청 DB).
2) 평년값은 전국 45개 지점(제주도 제외)의 1981~2010년 평균값을 의미함(기상청).
3) 가뭄으로 인해 수력전기의 손실, 수질악화로 인한 생물환경 악화 등 피해도 발생 할 수 있음.

2. 가뭄으로 인한 물가 상승

○ **(서민 필수 품목 상승)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강수량 변화에 민감한 배추 등 서민 필수 품목의 가격 상승이 클 것으로 전망됨**

- 2008년과 2010년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 부족은 배추, 무, 파 등 품목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일부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음
  - 양파를 예외로 하면 가뭄 발생 후 3개월간 배추, 무, 파 등 품목 중 일부는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장바구니 물가 불안으로 이어졌음

- 2012년 5월 현재 가뭄으로 배추 등 4개 품목의 가격은 약 4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 6월에도 25일[4]까지 평년값 대비 강수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가격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2012년 5월 현재 배추, 무 파, 양파는 전년동월대비 38%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 가뭄 시기 주요 농산품 가격 변동 >

(%)

		배추	무	파	양파
2008	2월	171.4	183.3	216.4	52.8
	3월	173.3	156.0	369.7	95.8
	4월	158.5	117.5	128.6	201.1
2010	6월	128.3	240.6	124.9	123.6
	7월	207.0	292.2	106.0	151.1
	8월	103.4	264.2	118.9	141.2
2012	5월	241.2	138.0	194.2	164.8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주 : 전년동월(=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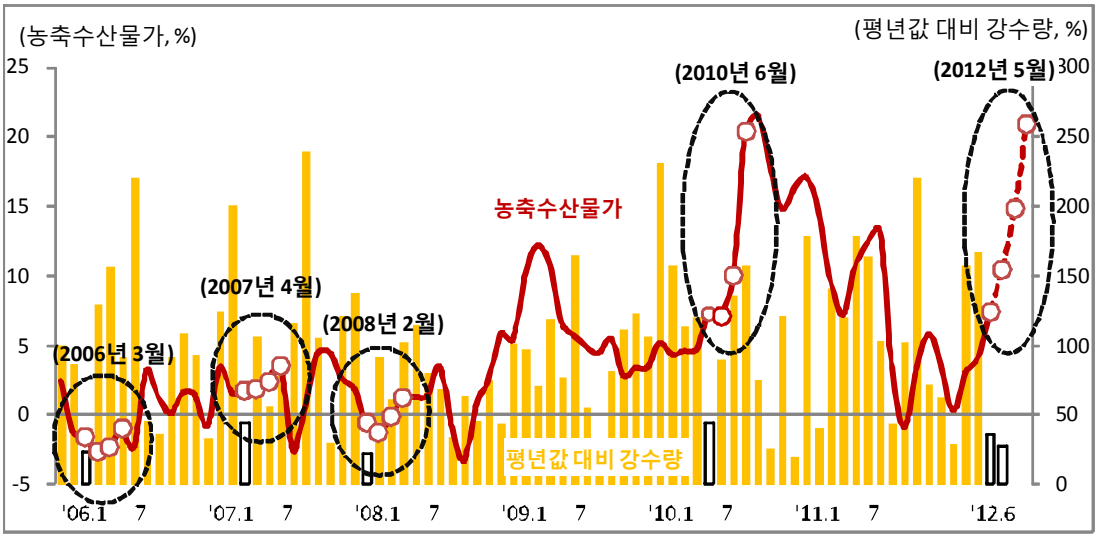
4) 2012년 6월(1~25일) 현재 강수량은 45.0mm로 평년값(1981~2010년)인 161.6mm 대비 27.8%에 불과한 수준을 기록 중.

○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전망)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2012년 이전의 경우를 보면, 가뭄 발생 후 적어도 3개월 후까지 농축수산물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일정한 추세를 보였음
  - **2006년 3월** : 3월에 농축수산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6%, 2.0%에서 6월 -1.0%, 2.4%로 상승. 농축수산물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승률 유지
  - **2007년 4월** : 4월에 농축수산물가와 소비자물가는 1.7%, 2.5%에서 7월 3.5%, 2.5%로 상승
  - **2008년 2월** : 2월 농축수산물가와 소비자물가는 -0.6%, 3.6%에서 5월에 1.2%, 4.9%로 상승
  - **2010년 6월** : 6월 농축수산물가와 소비자물가는 7.2%, 2.7%에서 9월에 20.3%, 3.4%로 상승

- 현재의 가뭄이 2010년 6월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농축수산물 가격은 20%대로 급등하고 소비자물가는 3%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큼
  - **(유사성)** 2010년과 2012년 현재의 가뭄은 모두 6월(혹은 5월) 기준으로 강수량이 평년값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계절적으로 일치함
  - 농축수산물가가 2010년 6월 7.2%, 2012년 5월 7.4%이고 소비자물가는 각각 2.7%, 2.5%로 유사한 상승률을 보임

< 강수량과 농축수산물가 추이 >



자료 : 통계청, 기상청.
주: ◌ 안은 각 시기별 가뭄 기와 물가상승률 추이임.

· **(물가 상승 가능성)** 2010년 6월 가뭄과 현재의 가뭄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2012년 5월 현재 농축수산물가 7.4%와 소비자물가 2.5%는 3개월 후 20.9%와 3.1% 내외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큼

※ 2010년 가뭄 발생 시, 6월에서 9월 기간 중 농축수산물가와 소비자물가는 각각 181.9%, 25.9% 상승하였음

3. 정책 대응 방향

○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 등 저소득층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강수량 부족에 민감한 양파 등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 지속**
  · 기존에 계획된 배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한 비축물량 방출 일정 조정, 의무수입무량의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수급안정 유도

- **지속적인 유통 구조 효율화 추진**
  ·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 가격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 최소화

- **담수능력 제고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비하여 저수지 확대개발, 준설사업 등의 근본대책 마련

경제연구본부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